

강원개발공사-양구군 추진, DMZ 경제순환센터 준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1.11.24 17:10 수정 : 2021.11.24 17:10

【파이낸셜뉴스 양구=서정욱 기자】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가 양구군과 함께 추진 중인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건립사업이 준공됐다.



24일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는 양구군과 함께 추진 중인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건립사업이 준공, 도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과 특화기업육성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개발공사 제공

24일 강원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준공된 DMZ 경제순환센터는 국비와 군비 등 총 39억원을 투입해 양구군 함춘로에 위치의 2234㎡ 부지에 총 면적 996.03㎡,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준공됐다.

이번에 준공된 DMZ 경제순환센터는 1층에는 운영실과 커뮤니티 센터, 체험관을, 2층에 창업보육 시설과 아이디어 팩토리 등이 마련되어 지역 내 기업 지원업무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하게 됐다.

한편, 공사는 이날 양구군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300만원 상당의 지역인재 장학금을

양구군에 기탁하여 본 준공식을 더욱 더 빛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만희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강원도 균형발전과 도내 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숙원사업에 꾸준히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